

2026년 8월 27일 제 8호 발행

2026년 임단협안 발표

KT 노조에서는 2026년 단체 교섭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합원의 관심사라 볼 수 있는 임금인상안을 정률 6%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 협약인상률: 정률 6% 인상
 - 2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2.48%)+물가인상률 전망(2.45%) : 4.93%
 - 24~25년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협약인상률 차이 누적 : 1.1%
 - ※ 2026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 5.8%
 - 최소임금인상분(4.3%) + 실질임금보전분(1.5%)

위 표에는 연대자금 조성분 1.5%가 빠졌습니다.

연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전례로 볼 때 2.5%나 3%, 일시금
200만원으로 통칠거라고 비아냥 댁니다..

또 G4 조합원의 장기 승진 적체 해소방안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한다 합니다.장기 승진 적체가 G4가
많을까요.G2/G3 적체가 더 많을까요? KT 부장이 승진
적체라고,단순히 근속연수가 쌓였다고 선심 쓰듯이
던져주는 직급일까요? 몇 년 전 노조 전임인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우루루 G4로 승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이 승진한다는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조합원들이 비판합니다.

이번에도 G4 지부장들과 노조 간부들의 셀프 승진
잔치가 될거라고.

KT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KT 2분기 실적 발표

KT 새노조의 2분기 실적 관련 논평 요약입니다.
T의 2026년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선서비스 매출 감소다. KT는 기저효과라고
설명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펌토셀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과 신뢰 하락이 본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KT 새노조의 주장이다.

논평은 박윤영 대표가 취임 후 3년간 18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상반기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네트워크·정보보안 투자와
현장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KT가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강조하지만
아직 통신 본업을 대체할 수준이 아니며, 비용
절감 중심의 경영으로는 고객 신뢰 회복과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KT 새노조는 박윤영 대표에게 ▲네트워크·보안
투자 집행 내역 공개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
개선 ▲현장 노동자와 협력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인력 감축 중심의 비용 절감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KT 새노조 공지 사항

**8월 28일~29일 양일간 새노조 전 조합원
수련회 개최합니다. 가족 동반 가능합니다.

참여 조합원은 각 지회 지회장님이나 방영식
부위원장님께 콜! 010-6770-6968

망설이시는 조합원 계시면 무조건 오세요.

할까 말까 할때는 GO!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후회하지지 않을겁니다

[붙임] 2026년 단체교섭 조합 요구(안)

구분	단체교섭 안건	세부 요구 사항
임금 분야	①임금인상	○ 협약인상률: 정률 6% 인상 - 2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2.48%)+물가인상률 전망(2.45%) : 4.93% - 24~25년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협약인상률 차이 누적 : 1.1% ※ 2026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 5.8% - 최소임금인상분(4.3%) + 실질임금보전분(1.5%)
	②일시금 지급	○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 일시금 지급 요구 - 해킹사태, 장기간 경영공백, 조직개편 지연 등 어려운 환경에도 최선을 다한 조합원 격려 및 사기진작
	③성과급 제도개선	○ 성과급 지급방식 및 성과배분제 개선 - 성과급 격월 지급방식 변경 - 성과배분제 개선(성과급 85%의 재원 명절상여금 전환)
인사 분야	④특별승진 시행	○ 동일직급 장기체류자 특별승진 시행 - G4 조합원의 장기 승진적체 해소 방안 마련
복지 분야	⑤개인연금저축 신규가입	○ 개인연금보험 신규 가입 및 회사 지원금 인상 - 개인연금보험 ‘26년 말 종료에 따른 신규 가입 필요 - 회사 지원금 인상: 5만원/월 → 10만원/월
	⑥우리사주 주식 지급	○ 회사와 조합원의 동반성장 및 애사심 고취를 위한 우리사주 지급 - 회사의 성장과 함께 조합원의 실질적 자산증식 방안 마련 - 조합원과 회사가 미래를 함께하는 애사심 고취를 위한 우리사주 지급
고용 안정 분야	⑦임금피크페지 및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폐지를 통한 임피대상 조합원 임금 불평등 해소 - 임금 20%(2년) 삭감에 따른 임금소득 저하 해소 ○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는 정년연장 - 조합원 소득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년연장 선제적 도입